

국가 형성과 종교, 그리고 민족 정체성:

유럽의 거시 역사적 고찰

조 홍 식 |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유럽에서 다양한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종교와 국가의 상호 관계가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거시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이 논문의 핵심은 다양한 유럽 국가 형성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종교를 활용하는 정치적 논리를 강조하며, 일단 특정 환경에서 형성된 정치와 종교의 결합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확인한다.

중세 시기 서유럽 지역의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 보편적 가톨릭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국가의 정통성을 제일 먼저 세웠고, 중부 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 역시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통해 신생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 그리스 정교가 지배하던 유럽의 동부 지역에서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를 형성하면서 콘스탄티노플로부터 독립한 자율적 정교 교회를 세움으로써 역시 국가 정통성을 확보했다. 마찬가지로 16~17세기에는 잉글랜드의 성공회, 덴마크와 스웨덴의 루터교회,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칼뱅교회 등이 전형적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과 기독교의 종파적 선택을 결합하였다. 종교와 국가의 결합이 이뤄지는 결정적 분점의 공통점은 경쟁적 환경에서 정치 세력이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 분점에서 만들어진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놀라운 지속성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경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특히 정교나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특정 민족 언어나 문자와 종교적 선택이 결정체를 이루면서 더욱 강한 민족 정체성의 요소로 등장하였다.

주제어: 유럽, 종교, 국가, 민족 정체성, 거시 역사

I. 서론: 민족 정체성의 정치

유럽에서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존재해 왔다(Anderson, 1983; Gellner, 1983; Hastings, 1997; Hobsbawm, 1990; Smith, 1986). 첫째 논쟁은 민족이 생성된 시기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민족(natio)이라는 라틴어가 사용되던 중세 시기부터 이미 상당히 강한 정치공동체로서 민족이라는 의미가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프랑크 대혁명 이후 근대 시기에 와서야 진정한 민족 개념이 등장한다고 반박한다. 둘째 논쟁은 민족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왕실과 귀족 등 소수의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민족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특정 지역의 주민을 포괄하는 대다수가 하나의 민족을 형성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민족이 생성된다는 시각이다. 셋째 논쟁은 결국 민족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사실만으로 민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려는 목적이 민족을 정의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민족 등장의 시기나 범위,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은 역사를 분석하는 사회과학의 세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상호 배타적인 입장으로 필요 이상의 논쟁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다. 민족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절대화하기보다는 주요 개념을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은 생산적 논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족과 관련하여 민족 정체성이라는 접근은 바로 이런 부분적 분석의 한 방법이다. 하나의 정의나 기준으로 민족의 절대적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복합적인 민족 개념의 거시 역사적 형성과정을 따져보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Smith, 1991: 14)는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1) 조국(homeland)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적 영토, 2) 공동의 신화와 역사적 기억, 3) 공동의 대중 공공 문화, 4) 모든 소속원에 적용되는 공동의 법적 권리와 의무, 5) 소속원의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의 경

제를 들었다. 이상의 분야별 요소를 시기적으로 구분한다면 일반적으로 영토나 신화, 역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거나 오래 전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소속원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테두리나 경제적 틀은 근대화 이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유럽에서 거시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종교와 국가의 상호 관계가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분석한다. 종교적 차원에서 유럽의 거시적 역사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4세기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Corbin, 2007). 중세에는 유럽을 기독교권(Christendom)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럽과 기독교는 동일시되는, 달리 말해서 유럽의 핵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적어도 기독교 세계에서 성경은 민족의 기원적(original) 모델을 제공하였다”(Hastings, 1997: 4). 하지만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유럽 전체가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했어야 할 것이다.

유럽 대륙의 특징은 바로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지역이라는 사실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민족들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다양한 민족의 정체성에서 종교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세기 소련의 스탈린은 “바티칸의 교황이 몇 개의 군대 사단을 가졌느냐”며 종교의 역할을 무시하곤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은 가톨릭의 색채가 강한 폴란드의 민족주의를 장기적으로 흡수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성공회가 지배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영국이 끝내 융합하지 못한 것은 가톨릭의 아일랜드였다. 마찬가지로 정교에 기초한 민족주의 세르비아는 자유주의적 정치 개혁에 강한 저항을 보였다(Hastings, 1997: 185). 유럽 지역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공통점을 갖지만 동시에 다양한 분파나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차별화하기 때문이다.

민족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 논문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각을 반영한다. 우선, 종교를 활용하는 정치적 논리를 강조한다.¹ 브루이는 “민족주의는 민족성의 표현이 아니”라면서 기존

1. 제목에서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강제력을 활용하는 정치적 조직’(Tilly, 1992: 2)을 의미한다. 중세에 이미 근대적 국가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논의의 전개를 위해 최소한의 정치단위와 조직을 국가로 부른다는 말이다. 거시 역사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광범위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의 너무 많은 연구는 민족주의의 정치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파악했다고 비판했다(Breuilly, 1985: 382). 기독교나 이슬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등 특정 종교나 분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기보다 그것이 정치적 논리 또는 합리성과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중요한 고리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제도주의 접근을 반영하여 결정적 분점에 주목한다(Steinmo, Thelen, and Longstreth, 1992). 결정적 분점이란 특정 민족의 역사와 종교가 결합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특히 당시 주요 행위자들의 동기와 이익, 그리고 결합의 구조화 등을 살펴본다. 우리가 국가형성이라 부르는 과정은 상당히 장기적인 과정임에 틀림없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어느 시기에 특정 국가의 형성과 종교적 선택이 결합하여 장기적인 종교적 민족 정체성의 기원으로 불리게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²

II. 가톨릭: 서로마 제국의 유산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다양한 기독교의 분열에 대한 설명은 로마 제국의 분열 및 제국의 역내·외의 차별화에 기초한다. 서로마 제국의 지역에는 가톨릭이, 동로마 제국의 지역에는 정교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역외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설명이다(Foucher, 2015: 92). 이런 커다란 설명은 정확한 인과관계나 역사적 과정에 기초하기보다는 지리적 영역과 종교적 분파가 서로 중복한다는 결과론적 인식이다. 실제로 지리와 종교 분파가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설명이 설득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와 과정이 작동했는지를 덧붙여야 하며 상당히 많은 예외적인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

2. 경로의 의존성은 일단 결정적 분점에서 종교와 국가 형성이 결합하면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가 함께 진화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와 민족 정체성의 결합이 이뤄지는 기원에 논의를 집중한다. 다만 결합 이후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인하되, 이를 설명하는 것은 추가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 제국의 중심,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기독교가 발생하여 확산하는 로마 제국 시기(1~5세기)에 지중해 지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었다.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발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제국의 정치 수도인 로마로 전파되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모두 로마에서 순교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지리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4세기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식화함으로써 정치적 수도와 종교적 중심은 더욱 강력한 고리로 연결되었다. 특히 서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교회의 위상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가톨릭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런 로마의 핵심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중세 시기 가톨릭교회의 역할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정치 질서가 붕괴된 자리에 유일하게 조직적 역량을 보유한 종교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서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는 그물 안에 로마교회는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황은 그 중앙조직의 수장으로 기능했다. 기본적으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의 보편주의적 성격에 덧붙여 서로마 제국의 유산을 받은 지역적 중심으로 가톨릭교회와 로마, 그리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 지역은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을 발전시키는데 장애를 안았던 셈이다.

4~5세기 형성된 로마와 이탈리아의 중심성은 19세기 이탈리아가 하나의 민족국가로 뒤늦게 통일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로마교회와 교황은 중세부터 직접 군주의 역할을 통해 일부 영토에 대한 세속적 정치주권을 추구함으로써 종교적 보편성과 정치적 특수성의 대립 및 모순은 이탈리아의 통일 국가 건설이나 확고한 민족 정체성 형성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했다(Bedani and Haddock, 2000).

2. 제국의 분화, 프랑스와 이베리아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프랑스와 이베리아는 서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다. 프랑스는 6세기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신생 강국의 정치력과 전통적 종교의 연합을 형성하였다(Braudel, 1992). 8세기 샤를 마르텔이 푸아티에 전투를 통해 이슬람 세력의 유럽 침략을 저지한 사건이나 9세기 샤를마뉴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가톨릭 교황과 맺은 연합은 정치와 종교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프랑스 왕실은 이후 ‘매우 기독교적인 왕’(rois très chrétiens)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가톨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13세기 프랑스의 왕 루이 9세는 십자군 원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자로 추앙된다. 절대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초기 기독교가 점차 현실과 타협한 결과 전쟁을 인정하게 되고 심지어 전쟁의 영웅을 성자로 받드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이다. 14세기에는 교황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벌어진다. 중국에서 전투적 지배력을 가진 유목민족이 중화민족의 문화에 동화하여 헤게모니를 추구했듯이, 유럽에서 프랑크 세력 및 프랑스 왕국은 가톨릭의 종교와 연합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셈이다.

이베리아 반도는 로마 제국 기독교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의 지배권에 들어갔다. 프랑스 지역에서 프랑크 족이라는 새로운 점령 세력이 기독교를 채택하여 동화되었다면 이베리아에서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장기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국면이었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베리아의 다양한 기독교 왕국은 재정복(Reconquista)이라고 불리는 투쟁을 통해 이슬람과 대립하였다(Wood, 2012). 따라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거시 역사적 민족 정체성은 이 투쟁과정에서 가톨릭교회와 결합하게 되었다. 프랑스 왕들이 매우 기독교적이었다면 스페인 왕실은 15세기 재정복을 완성한 이후 교황이 내린 ‘가톨릭 왕’(Reyes Católicos)이란 명칭을 누리게 되었다. 스페인 서북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어 서유럽 최고의 순례지로 부상했으며, 산티아고는 스페인을 상징하는 성인으로 기능한다. 또한 스

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를 대상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도 가톨릭 신앙의 전파와 야만적 민족의 선교를 명분으로 내세우곤 했다. 16세기가 되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유럽의 강대국으로 등장하였고,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도움을 요청하면 군대를 파견하여 이탈리아 내정에 깊이 관여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3. 새로운 선교지역: 중부 유럽

10세기와 11세기가 되면 기독교의 영향력 밖에 있던 지역까지 종교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민족이나 국가의 형성과 기독교가 긴밀하게 접목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폴란드는 966년 미에슈코 1세(Mieszko I) 국왕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최초의 폴란드 국가조직을 만들었다(Blockmans, 1997: 61). 당시 유럽의 주변부에 위치한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폴란드 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가톨릭교회가 갖고 있던 조직적 역량을 활용하려 하였던 것이다. 헝가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중부지역으로 진출한 마자르족이 만든 국가다. 이스트반 1세(Istvan I) 국왕은 1000년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아 기독교 정통성을 지닌 왕으로 부상하면서 지배력을 공고히 하였고, 기독교의 관습을 주민에게 강제하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사후 1083년 시성(諡聖)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헝가리에서 성 이스트반 데이(8월 20일)는 최초로 국가를 건립한 날로 기념하는 국경일이다(Thiess, 1999: 279).

이상 가톨릭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가톨릭과 민족 정체성의 결합이 이뤄지는 결정적 분점에는 항상 정치적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로마의 경우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도시로 부상한 뒤 국력을 통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종교의 보편성과 정치의 지역성이 서로 상충하는 대립관계로 민족 정체성의 형성이 늦어짐을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배자가 종교의 정통성을 활용함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을 교

묘하게 접목하여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통성을 추구하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의 클로비스 왕이나 스페인의 재정복을 추구한 왕들, 폴란드의 미에슈코 1세나 헝가리의 이스트반 1세는 모두 기독교를 통해 민족의 통합과 국제적 인정을 추구한 정치권력들이다. 일부 왕들은 전쟁을 통해 성인으로 부상하기도 하면서 민족사와 종교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후 역사의 과정에서도 사후적으로 왕실과 민족의 개종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공동의 기억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도 특정 왕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기독교의 확산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서임권 분쟁이 보여주듯이 신성로마제국과 정통성과 권위를 둘러싼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던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프랑스나 스페인 등 강한 정치세력과 긴밀한 관계 형성은 군사적 동원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요긴한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동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통치자와의 관계 또한 종교의 확산에 덧붙여 교회의 권위, 그리고 변방의 평화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Marin, 2007: 164-170). 많은 경우 동유럽이나 북유럽 통치자들의 기독교로 개종 이후에도 이전의 토속 종교를 상당 부분 유지했다는 사실도 이런 정치적 교환관계를 증명한다.

III. 정교: 동로마 제국의 유산

정치적인 차원에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중해를 통합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면서 기독교 역시 양쪽으로 분열되는 진화과정을 거친다.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가톨릭과 콘스탄티노플³의 정교로 분열되는 것은 11세기이지만 그 이전부터 동·서 로마의 교회는 어느 정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여기서는 정교의 중심이었던 그리스의 사례를 검토하고,

3. 콘스탄티노플은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함락한 이후 개명하여 이스탄불로 오늘까지 불리지만 여기서는 해당 시기의 명칭을 사용한다.

정교가 중세에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등 발칸 반도에 정착하는 과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새로운 중심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1. 문화의 중심, 그리스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명의 유산을 이어 받아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지배하는 제국을 형성했다. 거대한 제국 내부에는 문화적으로 그리스어가 지배하는 동부와 라틴어가 지배하는 서부가 나뉘어 있었다. 기독교가 처음 발생하여 확산한 지역은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이며, 뒤늦게 기독교권으로 영입된 지역이 라틴 문화권의 서부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성서와 자료들이 그리스어로 작성된 것도 이런 이유다. 달리 말해서 기독교의 종족적 기원은 유대 민족의 히브리어에 기초하고 있지만, 문화적 바탕은 그리스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동로마의 기독교를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여기서 그리스는 현재 민족국가로 독립한 그리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문명의 광범위한 전통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정교의 특징은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라고 할 수 있다. 황제교황주의란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형태, 또는 정치 권력자가 기독교의 교황을 좌지우지하는 형태를 뜻한다. 서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 급속하게 붕괴된 반면, 동로마 제국은 형식적으로 15세기까지 유지되었다. 특정 종교와 국가 권력이 융합하는 경우 신정국가가 되거나 또는 황제교황주의의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슬람처럼 종교 교리에 세속적 권력과 전쟁 등을 포함하는 경우 신정국가의 설립이 수월하지만 기독교처럼 종교와 세속의 분리를 강조할 경우 중정분리나 황제교황주의의 성향이 강하다(Flori, 2002: 7-11).

정교의 또 다른 특징은 교회의 다원성이다. 동로마 제국 아래서도 5두 체

제(pentarchy)라는 명칭으로 콘스탄티노플,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의 교회가 각각 총대주교(patriarch)의 지도 아래 자율성을 갖고 존재했다. 서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로마와 교황의 초국가적이고 압도적인 지배력과는 차이를 드러낸다. 이후 콘스탄티노플의 지배력이 약화되거나 이슬람의 지배로 넘어가면서 다른 교회가 새로운 중심을 자처하려는 경향은 이미 이런 다원성에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발칸 지역: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서유럽에서 프랑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교황의 종교적 리더십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정교의 지역에서는 정치세력이 자신의 영역 내부에 독립된 교회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발전했다. 말하자면 파리나 마드리드에 프랑스 가톨릭교회와 스페인 가톨릭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셈이다. 그만큼 국가와 종교의 결합이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고, 이로써 민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력했다고 할 수 있다. 발칸 지역에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는 콘스탄티노플의 정교 교회에서 독립하여 수립된 최초의 교회들이다(Roudometof, 2001).

불가리아에 처음 제국이 수립된 9세기 보고리스는 로마의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경쟁 관계를 활용하여 자국 교회의 독립성을 추진하였다. 그는 모라비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 제자들을 수용하여 그리스와 슬라브 언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글라골리틱(Glagolitic) 알파벳과 종교 의례를 불가리아 교회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스 정교에서 지배적이던 그리스 언어와 문자에 대한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르비아에서는 13세기 독립적인 정교 교회를 수립함으로써 불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인정받는 정교 교회가 된다. 성 사바(Saint Sava)는 세르비아 지배 가문의 일원으로 그리스 아토스 산 수도원에 있는 동안 1204년 서유럽의 십자군과 가톨릭교회의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파괴하는 사건을 겪는다. 그 뒤 세르비아로 돌아와 반(反) 라틴 및

가톨릭 성향을 갖고 정교 교회의 대교구를 설립함으로써 가톨릭과 정교의 경계 지역에 확고한 정교의 기지를 만들었다.⁴ 역사적으로 세르비아와 정교 교회는 오토만 제국과 협력하며 하부조직으로 활동했지만 17세기부터는 1389년 코소보 전투에 참전한 세르비아의 라자르(Lazar) 왕을 ‘예수화’하여 민족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전략으로 돌아섰다(Hastings, 1997: 129-132). 종교적 독립에 이어 정치적 독립까지 추구하는 거시 역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3. 새로운 로마, 모스크바

중세 러시아의 중심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프를 근거지로 삼았다. 하지만 몽골의 침략은 동유럽에 근본적인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했다. 러시아 세력은 보다 북쪽의 모스크바로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 종교적으로 러시아의 정교는 동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나 지정학적 변화는 다시 종교적 독립성을 자극했다. 러시아 교회는 몽골 제국으로 인한 단절이 동로마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자 점차 자율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Fukuyama, 2011: 391-392). 게다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의 오토만 제국에 함락하자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임명하던 모스크바 수석대주교를 자율적으로 선출하기 시작했다. 1596년에는 러시아 교회가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에 이어 총대주교구를 수립하며 러시아는 이 시기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 이어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는 주장을 펴게 된다. 이 주장은 정치와 종교 양면에서 러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겠다는 야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서유럽과 유사하게 동유럽의 정교 지역에서도 정치적 논리는 종교와 국가가 결합하는 결정적 분점에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동로마 제국 정교의 5두 체제는 정치·행정적 구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제국이 천년 이상 지속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은 황제교황주의의 전형적인 모습

4. 남부 슬라브라는 비슷한 언어 문화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며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크로아티아와의 대립은 20세기 말 구 유고 분쟁의 중요한 균열구조를 형성했다.

으로 발전함으로써 종교와 국가의 유기적 결합을 상징했다. 이런 종정결합은 불가리아에서 정치적 단위의 출범과 함께 독립적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나, 세르비아에서 역시 국가 건설 및 이후 재건 과정에서 교회설립과 종교적 신화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교회의 독립은 제일 나중에 실현되었지만 새로운 제국의 확장 국면을 맞아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서유럽처럼 초국적 교회와 지역적 국가의 긴장된 관계는 동유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국가적 단위의 차원에서 형성되었고, 정치권력이 교회를 지배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은 콘스탄티노플의 모델이 다른 교회로 전파되었고, 시간이 지남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장기 지속성을 나타낸다.⁵ 민족 정체성의 차원에서도 정교와 국가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재확인할 수 있다.

IV. 프로테스탄트: 정치적 자율성의 기회

가톨릭과 정교의 공식적 분립은 11세기지만 그 구분의 기원은 동·서 로마의 정치적 분립과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하던 그리스와 라틴 문화권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비슷한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분열을 로마 제국의 전통적 영역과 그 외부에 위치했던 영역의 차이로 설명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헝가리나 폴란드 등은 지리적으로 로마로부터 훨씬 멀리 위치하지만 가톨릭 세력으로 남았다. 스위스나 독일, 네덜란드 등 로마로부터 더 가까운 지역은 반대로 프로테스탄트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결과론적인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대립의 설명보다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가 형성은 가톨릭과 긴

5. 가톨릭교회가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민족 정체성의 바탕이 된 현실과 정교가 여러 개의 민족교회로 나뉜 차이를 설명하는데 후자의 황제교황주의는 무척 중요한 변수며 여기서는 주로 이를 언급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 교회와의 관계, 변방 교회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동로마 제국의 멸망 등은 각각의 사례 분석에서 감안해야 할 것이다.

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기서는 프로테스탄트로 전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우선 성공회라는 민족국가 차원의 교회를 형성한 잉글랜드를 살펴본 뒤, 루터주의 중심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칼뱅주의의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을 분석한다.

1. 잉글랜드와 성공회

정교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5두 체제를 통해 자율성을 가진 교회들이 초기부터 존재했고 중세에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러시아 등에서 각 국가의 민족 정체성을 가진 자율적 교회들이 만들어졌다. 반면 가톨릭 지역에서는 초국적인 통일 교회와 왕조에 기초한 자율적 정치권력이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16세기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8세가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독립한 성공회 교회(Anglican Church)를 설립함으로써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통일하는 계획을 주도하였다(Greenfeld, 1992: 44-70).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14~15세기에 걸친 백년전쟁을 통해 서유럽에서 가장 강한 왕권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 가운데 잉글랜드가 종교적 독립을 선언했다는 사실은 유럽 전체에서 프로테스탄트의 확산에 중요한 모델의 역할을 담당했다.

잉글랜드에서 성공회라는 국가교회의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Claydon and McBride, 1998). 잉글랜드의 가톨릭교회 자체가 로마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잉글랜드에서 최후의 대륙 출신 대주교는 사보이의 보니파스(Boniface of Savoy)로 1270년 사망하였고, 그 후 잉글랜드 가톨릭교회의 수뇌부는 현지화되었다. 다른 한편 영국의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과 재혼 문제로 로마 교황과 대립하는 입장에 있었고 1533년 성공회의 설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해 왔던 종교적 자율성을 정치적으로 공식화하는 셈이었다. 이에 덧붙여 잉글랜드의 국가는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차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유럽의 상호 경쟁 체제에서 유럽 대륙의 강대국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이 가톨릭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이었

다는 국제정치적 상황도 잉글랜드의 선택에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헤스팅스는 “프로테스탄트교에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요소는 없으며, 이들의 연계는 주로 우연적이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Hastings, 1997: 52-65). 잉글랜드는 가톨릭교회로부터 독립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모델로 부상하였다. 잉글랜드라는 하나의 민족국가와 성공회라는 잉글랜드의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잉글랜드와 성공회 모델은 이후 의회주의나 제국주의 등 세속적 방향으로 발전한 영국(Great Britain 또는 United Kingdom)의 민족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Colley, 1992).

2. 루터주의: 신성로마제국과 스칸디나비아

종교개혁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루터는 16세기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폈다.⁶ 일반적으로 가톨릭교회와의 대립은 16~17세기 종교전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종교와 국가의 상호 관계다. 우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은 순수한 종교적 대립이라기보다는 항상 정치적 차원을 동반했다. 군주와 주민이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질 경우 지배관계의 국내 정치적 대립은 명확했다.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도 당시의 국가의 중심이던 군주의 종교적 선택이 대립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종파 간 대립과 전쟁도 결코 적지 않았다.

종교와 국가의 긴밀한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는 잉글랜드뿐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Ihalainen, 2005: 69-85). 신성로마제국은 수백여 개의 독립된 정치적 단위로 구성되었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성향이 지금까지도 공존하고 있다. 반면 스칸디나비아는 종교개혁의 초기인 16세기

6. 신성로마제국은 9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된 느슨한 형식의 정치단위로 제국의 일 반적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 지리적으로 중부 유럽을 거의 모두 포함하는 영역이며 근대 독일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에 국가권력이 루터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민족국가 차원의 루터교가 수립되었다. 덴마크는 1536년 내전에서 승리한 국왕 크리스티안 3세가 덴마크 루터교회를 설립하였다.⁷ 당시 가톨릭교회는 전체 토지의 3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잉글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중심 교회가 이를 몰수하였다. 덴마크는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덴마크어로 번역하였고, 누구나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여 농민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덴마크의 18세기 농민의 교육수준은 유럽의 그 어디보다 높았다(Fukuyama, 2011: 432). 이어 같은 16세기 스웨덴도 루터교로 전환함으로써 스웨덴이 지배하던 핀란드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전체가 루터주의의 영역으로 일찍이 형성되었다.

3. 칼뱅주의: 스위스와 네덜란드

스위스 제네바의 칼뱅은 루터와 함께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중요한 종파의 핵심이다. 칼뱅주의는 베버(Weber)의 자본주의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스위스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두 가지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첫째는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를 자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제네바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부상하려 하였다는 사실이다. 서유럽에서 로마는 교황과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었기에 제네바와 암스테르담은 제2, 제3의 로마보다는 기독교의 기원인 예루살렘을 지향했던 것이다. 제네바는 도시나 교회의 스타일에서부터 초기 기독교의 청렴과 단순함을 내세우며 가톨릭교회의 화려함과 사치를 비난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국제적 수도였으며 로마의 역(逆) 모델이었다. 암스테르담은 관용의 정신을 내세우며 프랑스, 이베리아 등지에서 추방당한 프로테스탄트는 물론 유대인들까지도 수용하는 새로운 자유의 중심으로 부상

7. 덴마크 왕국은 당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하였다. 제네바와 레이던의 대학은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적 중심으로 부상했다.

둘째는 프로테스탄트 정체성이 네덜란드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지배하는 합스부르크 왕가는 전형적인 가톨릭교회의 지지 세력이었다. 네덜란드는 해양진출을 지향하는 저지대 정치 연합체로 서서히 부상하면서 정치적 자율성을 추구하였다. 잉글랜드에서 정치와 종교의 결합으로 민족주의와 프로테스탄트가 조합을 이루었듯이 네덜란드에서도 독립주의와 프로테스탄트가 만나 종교와 국가의 연합이 형성되었다는 뜻이다(Ihalainen, 2005: 52). 17세기 네덜란드는 공식적으로 독립하며 세계적 제국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잉글랜드의 성공회, 스칸디나비아의 루터교,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칼뱅교는 모두 종교적 저항과 분립에 정치적 합리성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하였다. 순수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기독교에는 항상 분리의 경향이 존재했고 실제로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이 빈번하게 시도되었다. 로마 제국의 붕괴 시기 많은 게르만 민족은 가톨릭이 아닌 아리우스 계열이었다. 중세에도 카타리파라고 불리는 성향이 로마 가톨릭 지배 영역인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고 체코 지역에서는 얀 후스(Jan Hus, 1369~1415)의 개혁 등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는 종교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세력과 결합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형성 과정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 특수한 종교적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강한 결정체로 부상하였다. 프로테스탄트의 경우 특징은 과거 가톨릭이나 정교에 기초한 민족 정체성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늦게, 달리 말해서 왕조에 기초한 영토국가의 틀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종교와 정치의 결합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강한 조직적 능력과 강제력을 보유한 정치 세력으로 기존 가톨릭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새로운 교회로 이전할 정도의 능력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중세의 권력이 종교를 활용한 측면이 크다면 근세의 비교적 강한 정치세력은 신흥 종교 개혁 세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종교를 변화시키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유럽 국가

들은 공통적으로 대중을 중시하면서 교육을 통해 사회변화를 추진하였고 이는 근대 국가의 민족 정체성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거시 역사적 분석은 적어도 기독교권에서 종교와 정치의 결합이 어느 시기에 긴밀하게 만들어져 국가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민족 정체성의 기저를 형성하게 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근대국가와 종정분리

이 연구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는 종교와 국가의 역사적 상호관계 형성이 민족 정체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정치적 합리성의 중요성과 결정적 분점의 역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정치적 합리성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를 상당 부분 도구적으로 활용했음을 유럽 기독교의 세 부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는 시기에 기독교를 수용하여 허용하고 더 나아가 국교로 삼은 이유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사실은 이 연구의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일반적 해석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가톨릭 지역의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 초국적 가톨릭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국가의 정통성을 제일 먼저 세웠다는 점이다. 그리스 정교가 지배하던 유럽의 동부 지역에서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를 형성하면서 콘스탄티노플로부터 독립한 자율적 교회를 세움으로써 역시 국가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16~17세기에는 잉글랜드의 성공회, 덴마크와 스웨덴의 루터교회, 제네바와 네덜란드의 칼뱅교회 등이 전형적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과 기독교의 종파적 선택을 결합한 프로테스탄트 지역의 특징이었다.

종교와 국가의 결합이 이뤄지는 결정적 분점의 공통점은 경쟁적 환경에서 정통성의 확보라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로마 제국이 건재한 상황에서 황제교황주의가 지배적이었다면,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정치적 지

배력이 분산된 상황에서 교황은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배력만이라도 유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를 비롯한 국왕들이나 신성로마제국의 샤를마뉴, 이베리아 반도의 왕들은 로마 교황의 종교적 정통성을 활용한 셈이다. 프랑크 왕국이나 신성로마제국은 다른 게르만 민족들과의 경쟁 상황이었으며, 이베리아에서는 이슬람과의 전쟁 중이었다. 동로마 제국의 약화나 붕괴 이후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러시아는 각각 새로운 로마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역시 종교적 정통성의 중심이기를 원했다. 프로테스탄트의 경우 새로운 중심을 지향하기보다는 기존의 초국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와 종교의 결합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선택이 더 강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종교와 정치의 결정적 분점에서 만들어진 결합은 놀라운 지속성을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경로 의존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얀 후스의 보헤미아 지역은 지속적인 전쟁과 합스부르크가의 가톨릭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의 색채를 잃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국가 건설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분석을 확인해 주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성은 특히 정교나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특정 민족 언어나 문자와 종교적 선택이 결정체를 이루면서 더욱 강한 정체성의 요소로 등장하였다. 동유럽에서 그리스 문자와 언어의 영향에서 비롯된 키릴 문자는 독자적인 종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슬람 세력이 오스만 제국의 발칸 지배로 콘스탄티노플의 중심이 사라진 이후 각각의 민족교회는 자국 언어와 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부상하였다. 마찬가지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독일의 민족주의 부상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제임스 왕 번역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영국에서 성경의 영어 번역이 왕실을 통해 이뤄진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reenfield, 1992: 52). 이처럼 종교와 국가의 결합은 언어나 문자를 통해 강한 민족 정체성의 요소로 굳어질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

19세기부터 유럽에서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근대적 민족국가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종교적 요소를 부정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프랑

스의 경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은 반종교적 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냈고, 대혁명 이후 혁명 정부의 정책은 가톨릭교회의 재산 몰수는 물론 종교의 영향력을 정치에서 추방하려는 경향을 반영했다. 특히 1905년에는 종교와 정치의 구분을 법제화하였고 이를 라이시테(laïcité)라는 강력한 의미의 종정분리로 자리매김하였다. 프랑스는 가장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도 대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국은 잉글랜드가 성공회와 결합하였지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등의 다양한 지역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괄해야 하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세속적 민족주의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독일도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했으며, 그 내부에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공존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적 정체성보다는 혈통 중심의 종족적 정체성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덧붙여 19세기와 20세기의 경제 근대화는 유럽 전체에 대규모의 이농현상과 도시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종교 자체가 크게 약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두 가지 정치적 분열구조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하나는 도시와 농촌의 차별화로 탈종교적 도시 정체성과 여전히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농촌의 대립이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계급적 차별화인데 부르주아 또는 중산층이 여전히 종교적 정체성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노동자 계급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의 보편화를 통해 탈종교 또는 반종교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근대 국가의 등장은 분명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종교와 국가 결합의 민족 정체성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런 변화에 대한 연구는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제거되었다고 판단하면 곤란하다. 첫째, 종교의 직접적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종교가 남긴 도덕적, 정신적, 문화적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 유럽 전체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세력이 기독교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독교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사회 민주주의 세력의 복지 국가에서조차 기독교적 인도애의 실천을 인식할 수 있다(Girard, 1999). 셋째, 일상생활에 남아있는 정체성의 요소들은 인식의 영역에서 벗어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인류학적이고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내야 한다(Billig, 1995). 유럽의 극우

민족주의의 반 이슬람 공격성이나 벨기에에서 드러나는 언어권의 상호 대립, 소규모 민족주의나 분리주의 등은 모두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자: 2017-02-14 심사일자: 2017-02-19 게재확정: 2017-03-20

참고문헌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edani, Gino and Bruce Haddock (eds.). 2000. *The Politics of Italian National Identity*.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 Billig, Michael. 1995.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 Blockmans, Wim. 1997. *A History of Power in Europe: Peoples, Markets, States*. Antwerp: Fond Mercator.
- Braudel, Fernand. 1992. *L'identité de la France*. Paris: Arthaud Flammarion.
- Breuilly, John. 1985. *Nationalism and the Stat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ydon, Tony and Ian McBride (eds.). 1998. *Protestantism and National Identity: Britain and Ireland, c.1650~c.18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ey, Linda. 1992.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183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orbin, Alain (ed.). 2007. *Histoire du christianisme*. Paris: Seuil.
- Flori, Jean. 2002. *Guerre sainte, jihad, croisade: Violence et religion dans le christianisme et l'islam*. Paris: Seuil.
- Foucher, Michel. 2015. "Europe, un fructueux mariage de raison." *Le Monde hors-série: L'Atlas des civilisations*. Edition 2015.
- Fukuyama, Francis. 2011.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irard, René. 1999. *Je vois Satan tomber comme l'éclair*. Paris: Grasset & Fasquelle.
- Greenfeld, Liah. 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stings, Adrian. 1997. *The Construction of Nationhood: Ethnicity, Religion and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 J.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halainen, Pasi. 2005. *Protestant Nations Redefined: Changing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in the Rhetoric of the English, Dutch and Swedish Public Churches, 1685~1772*. Leiden: Brill.
- Marin, Olivier. 2007. "Autour de l'an mil: Les "chrétiens nouvelles"." In Corbin, Alain (ed.), *Histoire du christianisme*. Paris: Seuil.
- Roudometof, Victor. 2001.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Orthodoxy: The Social Origins of Ethnic Conflict in the Balkans*. London: Greenwood.
- Smith, Anthony D. 1991.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 Smith, Anthony D.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London: Blackwell.
- Steinmo, Sven,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1992.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iesse, Anne-Marie. 1999. *La création des identités nationales*. Paris: Seuil.
- Tilly, Charles.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Cambridge: Blackwell.
- Wood, Jamie. 2012. *The Politics of Identity in Visigothic Spain: Religion and Power in the Histories of Isidore of Seville*. Leiden: Brill.

State Formation, Religion and National Identity: Macro Historical Reflections on Europe

Hong Sik Ch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ses how the interaction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in Europe from a macro-historical perspective. I insist upon the political rationale of using religious resources by analyzing historical critical junctures when state and particular religion have crystallized into one of the most durable bases of national identity.

In Catholic Europe, France and Spain have first established their state legitimacy by promoting the self-image of the guardian of the Church, while Poland and Hungary allied to the Catholic Church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their new states. The same analysis applies to the simultaneous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Orthodox churches in Bulgaria, Serbia, and Russia in the process of building new polities. Finally, examples of Protestant Europe are analyzed through the Anglican church, the Lutheran churches of Denmark and Sweden, and Calvinism in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along with the state formation process. In all those critical junctures, the alliance of religion and state formation has been a strategic choice for acquiring legitimacy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This alliance has proved to be surprisingly durable especially when crystallized into state apparatus as well as into vernacular languages or specific writing systems in Orthodox and Protestant Europe.

Keywords: Europe, religion, state, national identity, macro history